



중앙대-나라지식정보, AI 데이터 구축·연구 업무협약 체결

(서울=뉴스1) 양새롬 기자 | 2022-05-25 17:37 송고



왼쪽부터 정유남 연구교수, 이찬규 인문콘텐츠연구소장, 손영호 나라지식정보 대표, 박승희 전무. (중앙대학교 제공) © 뉴스1

중앙대학교는 인문콘텐츠연구소 인공지능인문학 연구단이 최근 나라지식정보와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·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.

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△인문·융합학문 분야 공동연구·조사·자문 등 협력 연구 △학술세미나·정책토론회 등 학술교류 △학술·동향 정보 교류 및 공동 협조 △연구 협력·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 인력 양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.

인문콘텐츠연구소 인공지능인문학 연구단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인문학국플러스(HK+)사업 선정을 통해 '한국의 MIT 미디어랩'을 목표로 2017년 출범한 연구기관이다. 게임공학·예술학·철학·심리학·역사학·영상학 등 인문학과 공학을 아우르는 다양한 전공의 구성원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인문학에 대한 다학제 간 연구를 선도하고 있다.

이찬규 인문콘텐츠연구소장은 "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이 분야별 전문 인력 교류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사업 경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지식정보화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"고 말했다.

<저작권자 © 뉴스1코리아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>